



‘오월의 꽃’ 금희 ‘생명’으로 피다

1980년 남광주역 인근 춘태여상(현 전남여상) 3학년 박금희(당시 16세)양은 호기심 많고 남을 잘 돕는 학생이었다. 학교에서 선도부장을 맡을 정도로 책임감이 남달랐고 4남4녀 중 막내였지만 가사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책임감도 강한 집안의 보배였다.

그해 5월 19일 월요일 금희는 학교를 마친 뒤 농성동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리장이 된 광주상황을 목격했다. 다음날 부모는 등교를 말렸지만, 금희는 “나는 선도부장이니 학교에 꼭 가야 해요”라며 기어이 등교를 했다.

이날 학교를 하던 금희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외침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금희는 광주기독병원으로 발길을 돌려 헌혈행렬에 동참했다. 금희는 알코올 냄새를 맡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염려돼 대인시장 인근에 사는 둘째 언니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5월 21일 아침 귀가했다.

부모는 언니집을 나와 무사히 귀가한 금희를 보고 안도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금희는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부모는 안심하며 발길을 내갔다. 부모가 본 금희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친 광주시민들을 치료할 혈액이 필요하다는 외침을 잊을 수 없었던 금희는 점심 때쯤 집을 나와 다시 기독병원을 찾았다. 간호사들은 중학생 때부터 곧잘 헌혈을 하곤 했던 금희를 반갑게 맞아줬다. 한시간쯤 기다린 뒤 헌혈을 마친 금희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디선가 날아온 M-16 총탄에 복부를 맞아 세상을 떠난다.

기독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 웃으며 떠났던 금희가 피투성이 시신으로 돌아오자 슬픔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5·18 39주년을 맞아 박금희 열사의 후배 여학생들이 헌혈 캠페인을 열고 박



전남여상 교정에 세워진 '팔십년 오월의 꽃' 박금희 순의비.

1980년 5월 헌혈하고 오다

M-16 총탄 맞고 숨져

전남여상 후배 100여명

헌혈 캠페인 나서 열사 추모

광주기독병원에서는

5·18 의료활동 사진전 열어

당시 치열했던 현장 소개

열사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린다. 광주기독병원은 5·18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아 ‘금희의 오월: 빛진자들’을 주제로 오는 10일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과 ‘광주기독병원 5·18의료활동 사진전’(10~31일)을 연다. 주제명 ‘금희의 오월’은 고(故) 박효선 극작가가 박 열사 이야기를 모태로 연출한 연극 ‘금희의 오월’에서 따왔다.

2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광주전남직립자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헌혈 캠페인에는 박 열사의 후배들인 전남여상 3학년 학생 100여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헌혈과 함께 기독병원 일대에

서 시민을 상대로 헌혈 캠페인에 나서며 박 열사를 추모한다. 헌혈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독병원 1층 로비를 방문하면 된다. ‘5·18의료활동 사진전’은 5·18 당시 치열했던 의료 현장을 소개한다.

각종 연구에서는 광주기독병원에 부상자들이 유독 많이 몰렸던 이유에 대해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21일은 공휴일(석가탄신일)이었지만 광주기독병원은 정상근무를 해 모든 의료진이 대기상태였고 ▲큰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외국 선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진전에서는 5·18 당시 응급실 모습, 부상자 의무기록지, 영상과 수술자료,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오는 9일과 10일 오전 7시50분에는 각각 정중훈 연세대 교수와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겸 강사로 나서 ‘민주인권도시 광주’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박 열사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명 나눔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kimyh@kwangju.co.kr



대구 수리·달이 제막식 2일 오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남정달 대구시수영연맹 회장, 김익주 광주시의회 행사위원장, 대구시청 핸드볼 선수 등이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 조형물 제막식을 가진 뒤 대회 성공개회를 기원하고 있다. /매일신문=김영진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가 직접 나선다

후보지 주민 대상 설명회

국방부가 주민 설명회에 직접 나서기로 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전 후보지 일부 주민 반발로 교착 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직접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공항 이전 사

업이 장기 표류하자 “(주민들과 쌓인 오해) 풀 건 풀고, 설득할 건 설득하자”는 방향으로 급선환한 것이다. 다만, 설명회 시기와 함께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지역 자치단체 4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지, 타당성이 높은 특정 지자체에서만 설명회를 열지 등 구체적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이후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 공식 설명회를 열 준비를 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라며 “지난 3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경두 국방장관의 3자 회동 이후 움직임이 빨리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위해 다양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공항 이전 사업 개요와 이전 후보지에 주어지는 지원사업비 내역 등이 담긴 소책자, 팸플릿,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있다. 또 각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각 보조 자료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PPT)로도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기획 중인 주민 설명회에서 4500억원 규모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사업비 외에 추가 지원책이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생체의료·전남 융합기기 산업 등 ‘탄력’

산자부 스마트특성화사업 선정

광주시의 광융합사업과 생체의료산업, 전남도의 융합기기산업과 첨단소재 융합산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지역거점 신규(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 적합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120억원과 160억원의 국비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산자부의 공모에서 광주시는 ‘광기반기술연계 광

융합산업 고도화사업’과 ‘생체의료산업 보급 기반 연계’를 통한 수출지향형 고도화사업, 전남도는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과 ‘첨단소재 융합 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 등 각각 2개 과제 전문가 사전 검토와 민간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다각화 전환을 위한 지역 성장정책으로, 전국 14개 시도가 27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어린이날 휴무... 6일 신문 쉽니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설화수 플레그시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시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